

## 광주의 관문 '송정역' 확 바뀐다

만남의광장 이달 말 국가계획 윤곽  
1,570대 주차빌딩 정식 운영 눈앞  
복합환승센터 돌파구 마련 관건



‘물의 날’ 피켓 퍼포먼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강, 하천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영산강과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가뭄과 강수로 물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김태규 기자

광주의 관문 송정역이 확 달라진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덜어줄 주차빌딩이 운영을 앞두고 있고, 역사 앞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중앙부처의 관심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인접한 투자선도지구 개발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계획된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까지 마무리될 경우 송정역은 서남권의 확고한 중심역으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정역의 1일 평균 이용객 2만2,000여명, 유동 인구는 4만4,000여명에 이른다. 2008년 국토부의 교통영향평가 예측 수요 8,785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향후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5년), KTX 수원·인천발(2024년), 평택-오송 복복선(2027년), 경전선(2028년), 달빛내륙철도(2030년) 등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경우 송정역 이용객은 하루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타 광역시·도 고속철도역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와 복합환승센터 등 부재로 이용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정역 이용 편의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우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중인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 사업이 2025년 목표로 진

행중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올해까지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설계 용역이 실시중이다. 오는 5월까지 증축 설계가 완료되면 대합실, 여객화장실, 승무처소, 출입구 개선 등 착공에 들어간다. 명실상부 호남권역의 관문인 송정역의 위상에 걸맞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광역시 KTX역 중 광장이 없는

곳은 송정역이 유일하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용객 편의 증진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송정역 광장(현재 임시주차장 공간) 4,500㎡에 넓다. 힐링 정원, 무대 시설, 조형물 등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

다. 송정역사 3차 증축 설계안에 현 임시주차장 공간을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반영시켜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원 장관은 "송정역 위상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것에 공감한다"며 "산하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 건의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 코로나19 접종 1년에 '한번씩'

올해 10~11월 전 국민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 접종처럼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이며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접종 이전에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올해는 무료 접종 방침이 유지된다. 이중 고위험군에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천식 등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접종하도록 했다.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 1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상당수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서울=강병운 기자

##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기소

이 "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가 최종 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 관련기사 5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

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p>저희 법무법인(유한) 맥은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마지막으 검찰을 퇴임한 이은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023. 3. <b>법무법인(유한) 맥</b></p> <p>구성원 소개 : 박강희, 조재건, 서정임, 문방진, 구희승, 권오성, 신광섭, 차현영</p> <p>■ 사 무 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유한) 맥 4층 ■ 대표 전화 : (062) 232-8800 ■ 업무개시일 : 2023. 3. 6. ■ 개업식일시 : 2023. 3. 23.(목) 16:00</p>	<p>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p> <p>◇ 주요 학력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남 광양, 광주 동산초, 동성중, 광덕고 졸업</li> <li>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89학번)</li> <li>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li> <li>서울고검, 춘천지검 인권보호관</li> <li>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li> <li>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li> <li>창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li> <li>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li> <li>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li> <li>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li> </ul> <p><b>법무법인(유한) 맥 대표변호사 이은강 올림</b></p>

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

#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

4.28 금 - 30 일  
수원메세 수원역